



한우마당

제 21권 제9호(통권 166호)

2020년 9월 2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vol. **166** 2020.09.
Hanwoo Journal

contents

창립기념사

64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66 시·도지회장

특집 | 창립 21주년

78 전국한우협회 목표와 이념

79 전국한우협회 연혁

87 '살아있는 생산자 단체' 주요 운동사

104 창립21주년 특별 인터뷰 - 김홍길 회장

협회 사료 만족도 탐방

112 대한한우 사료 급여 후 1*등급 이상 출현율 100%
_ 충북 옥천 조정운 회원

120 협회사료 급여 후 투뿔(1**) 최고등급 출현
_ 전북 순창 권광희 회원

128 협회사료로 두당 사료비 30만원 절감
_ 전북 임실 김필기 회원

동고동락

136 거창축협 한우전문경영인육성센터

사양·컨설팅

146 한우사육 백문백답

150 태풍,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한우질병들

156 이제는 가축재해보험으로 대비하자!

소식·정보

160 수해와 태풍 피해지역 성금품 6억원 전달

165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168 3분기 한육우관측정보

174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안내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 내려갑시다

전국한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우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도지회와 시·군지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안정된 한우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협회를 믿고 함께 동참해주시는 모든 한우농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우농가 여러분,

9월 14일은 우리 전국한우협회가 21번째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입니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는 수많은 영광과 고난의 순간들을 함께 해 왔고 우리가 거쳐 온 투쟁의 역사는 한우협회에 살아있는 생산자 단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 전국한우협회의 저력입니다.

우리 한우농가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19와 태풍집중호우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성금모금 활동에도 큰 저력을 발휘하며 적극 동참해주셨습니다.

감동적인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한우농가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피해지역 곳곳에 농가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장을 여는 대변혁의 시대에 봉착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축경매시장이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비대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등 혁신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소값 안정화를 위해 시작한 협회전용사료와 직거래유통망 등 협회가 구축한 제도들은 농가의 사육주권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고기와 부산물의 고른 연중소비를 위한 할인행사와 농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후방업계 상생교류협력, 한우 플랫폼 구축 등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로 한우농가 동반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속에서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갈망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직접 느끼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는 중앙회 및 시도지회·지부 임직원 여러분과 묵묵히 응원해주고 계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한우협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위상은 지나온 역사의 경험과 선배 한우인들이 이룬 성과가 준 값진 트로피이자,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생산자가 그려나가는 한우산업 한우산업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새역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회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한우 생산자 단체 면모 기대



이연묵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인천경기도지회장 이연묵입니다.

전국한우협회 창립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우는 예로부터 우리민족과 함께 해온 가축이자, 현재는 우리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이처럼 한우산업은 우리 민족과 함께 걸어 온 민족산업입니다.

그동안 한우협회는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생우 수입 반대운동 등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켜왔으며 한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일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현재 한우산업은 각종 환경규제와 사료값 인상, FTA 등으로 인한 수입육 증가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우협회의 근간이 되는 한우인들이 이 어려움을 털 수 있도록 한우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을 지켜내고, 한우인들의 권익보호와 수익증대를 위해 계속 앞장 서 주기를 바라며, 지금처럼 농가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생산자단체의 면모를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립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우협회의 미래, 다양한 한우농가의 구심점



박영철
강원도지회장

반갑습니다. 강원도지회장 박영철입니다.

한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키워오면서 동반 성장해 온 한우협회가 어느덧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우산업은 전업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규모 축사를 신축하는 현장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농가들이 공존하여 상호 보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소규모농가들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우인들은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목소리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거쳐 단단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의 21년의 값진 경험으로 앞으로 30년, 50년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한우협회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정화 제도들의 빠른 도입과 정착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21주년을 자축하며 한우협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단한 힘과 저력으로 협회 기능과 역할 확대



이종범
충북도지회장

전국한우협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중앙회 임직원과 전국의 모든 지회·지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우는 전통적으로 우리 생활 속 보배였습니다. 농경사회에선 농기계로, 산업화 시대에는 어느 부위하나 버릴 것 없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지금까지 보배로 우리곁에 존재합니다.

한우협회 또한 우리 한우인들의 보배입니다. 창립부터 현재까지 굴곡진 한우산업사에서 언제나 선봉에서 굵직한 역할을 수행하며 50년같은 21년을 거쳐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우산업이 숱한 위기속에서도 단단해진 이유는 한우협회의 역동적인 활동 덕분이며, 한우협회의 역동적은 정책 활동은 농가 한분 한분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성년이 지난 우리 한우협회는 한우사육환경 안정화와 더불어 한우농가의 복지, 환경 등 그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우농가 권익보호 및 한우산업 발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한우농가의 구심점으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한우협회의 창립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우농가들의 든든한 벗 한우협회



최명식
대전·충남도지회장

한우협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한우농가 권익향상에 늘 힘써주고 있는 한우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우산업은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핵심산업으로 농촌의 파수꾼이자 지역사회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 한우농가의 권익보호와 수익증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고 정부와 첨예한 정책토론을 벌이며 지금의 한우산업을 만든 전국한우협회의 지난 21년의 노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굵직한 역사를 가진 우리 전국한우협회는 농가들의 피와 땀으로 살아있는 생산자 단체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의식과 영민함을 발휘하여 한우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우산업 진흥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우리 곁에 공기와 같은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규합하고 한우산업발전을 성실한 자세로 농가들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농가들의 든든한 벗이자 생산자 단체로서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며 창립 21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우협회, 농가의 열정으로 정진하길



정윤섭
전북도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정윤섭입니다.

우리 한우협회는 외우내환이 연속되는 격동의 시기의 위기감 속에서 1999년에야 비로소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반만년의 세월을 같이 살아온 한우로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디만, 그 동안 우리 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인들의 피나는 열정과 값진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우 산업이 이만큼이나마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우산업은 당장 눈앞에 2026년부터 관세빚장이 풀리는 쇠고기 시장, 냄새와 환경문제로 인한 갖가지 규제, 구제역 발생 위험 등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파고 속에서도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농가 스스로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 쇠고기값 대중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등 끊임없이 정진하고 함께 노력을 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에 빠짐없이 동참합시다.

한우농가를 위해 헌신봉사해 주시고 우리 한우농가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국한우협회의 창립 21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우마당 유익한 정보 농가에 이익



안규상
광주·전남도지회장

전국한우협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전남 한우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한우마당은 한우협회 소식지로서 대한민국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소식과 정보, 대정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등을 홍보하고, 특히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모범적인 선도 농가 등을 소개하여 한우인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 출하시 한우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망 출하는 한우농가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출하 방법입니다. 저도 활용하고 있기도 한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은 음성공판장 출하 쏠림 현상 방지효과와 분산 출하로 인한 경락가격 하락 방지를 할 수 있어 출하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한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홍보해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한우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협회와 한우농가를 대변하고 홍보하는 한우협회 홍보지로서의 한우농가에게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한우협회



김삼주
대구·경북도지회장

한우협회 창립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도지회장 김삼주입니다. 지난해 경북 영주에서 창립 20주년 행사를 진행하며 축제와 화합의 장을 열었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벌써 1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우리 한우인들은 경북 영주에 모여 ‘안정된 한우산업, 함께하는 민족산업’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정부에는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퇴비부숙도, 온실가스 등 사육여건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한우소비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산업의 번영을 위해선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농가여러분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한우협회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과거 투쟁의 역사로 획득한 살아있는 생산자 단체라는 수식어 외에도 이제는 영리한 생산자 단체로 도약하여 정부의 정책 러닝메이트이자 농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한우산업 대들보



강호경
부산·경남도지회장

반갑습니다.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장 강호경 입니다.

전국한우협회는 1999년 창립 이래 수입생우 반대투쟁을 비롯 해 여러 한우산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지난 20여년을 돌이켜 보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2007년 ‘한미 FTA체결’,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우리 한우로 현재도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간 한우자조금도 도입하고,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한우소비홍보행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국민소득이 점차 늘고 기계화 및 산업화를 거치면서 오늘날 한우는 농촌의 일소역할에서 최고의 단백질원으로 또 최고의 가치 소비품목으로 다시 재정립됨으로써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한우농가의 생존권 투쟁을 위하여 앞장서서 한우농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안정된 한우산업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국한우협회 창립 21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와 함께 우직하게 환경변화 극복



정인철
울산시지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전국한우협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백년대계로 지향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동안 전국한우협회를 잘 이끌어 오신 김홍길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한우사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축산단지 조성 및 ICT 한우개체관리 등이 필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국한우협회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숭한 환경변화를 우직하게 극복해온 한우인 여러분들이기에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면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전국한우협회 창립 21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전국 한우인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우사랑! 나라사랑!



안석찬
제주도지회장

한우협회의 21돌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지난해를 기점으로 성인식을 치르고 성인으로서 더욱더 발전하는 한우협회의 모습에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나 올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위가 버티고 있어 농어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우인들은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민족산업, 주력산업, 효자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더 결속할 때입니다. 한우유통가격이 다소 안정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한우 파동을 고려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지회도 소비촉진행사를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전국한우협회 창립 21주년에 함께하는 김홍길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한우를 사랑하는 모든 한우인에게도 무한 감사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중심! 한우산업을 지켜냅시다!

한우사랑! 나라사랑!



쇠고기 협상 무효화 한우농민
한우협회
일시: 2008년 4월 24일 13:00



피해보상농민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한우협회 창립 21주년 특집

- 전국한우협회 목표와 이념
- 협회 연혁
- '살아있는 생산자 단체' 주요 운동사
- 특별대담-김홍길 회장

전국한우협회 목표와 이념

전국한우협회 목표

**안정된 한우산업
함께하는 민족산업**



전국한우협회 이념

1. 우리 한우인들은 세계적 명품한우를 생산하는 자긍심으로 사회 지도자의 책임을 다한다.
2. 한우산업의 주체로서 한우농가의 권익신장에 노력한다.
3. 한우인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우선한다.
4. 품격있는 한우산업으로 민족산업을 이룩한다.
5. 세계 유일한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존하고 발전시킨다.

한우협회 연혁

1999 > 전국한우협회 창립

- 02 | 한국종축개량협회 강성원 회장, 한우협회 설립 시사
- 03 | 전국한우협회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강성원 위원장 추대
- 08 | 전국한우협회 발기인대회.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등 84명 구성
- 09 | 전국한우협회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이규석 회장 선출
제1기 집행부 구성
- 12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설립허가

2000 > 조직의 활성화

- 02 |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03 | 거세장려금 도입 및 구제역 살처분 가격 현실화 촉구
- 11 | 수입자유화 대응 한우산업 정책 심포지엄 개최

2001 > 한우농가 권익보호 활동

- 04 | 생우수입 반대 집회 개최(부산/인천 불로동 계류장)
- 05 | 수입생우 입식저지 쉼기대회 개최(경주, 정읍)
- 09 | 제1회 한우인의 날 개최(경기도 안성)

2002 > 도약하는 전국한우협회

- 02 | 생우수입 반대투쟁
- 04 | 한우 지키기 만만운동 돌입
- 06 | 한우 소비촉진 행사 개최(월드컵 경기장내 평화의 공원)
- 09 | 제2회 한우인의 날 개최(경기도 안성)

2003 >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

- 02 | 제2기 집행부 구성, 제2대 남호경 회장 취임
- 06 | 제40회 대중상 영화제 한우소비촉진 행사 진행
- 09 | 제3회 한우인의 날 개최(경북 경주)

2004 >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산업 여건 조성

- 02 | 남호경 회장 축단협 회장 선출
- 04 | 농림부 장관 초청 한우분야 간담회 개최
- 09 | 제4회 한우인의 날 개최(경남 하동)
- 07~09 |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거 실시

2005 > 유통투명화 실현 운동

- 05 | 유통투명화 실현 운동
- 06 | 육류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9 | 제5회 한우인의 날 개최(전남 장흥)

2006 > 한우산업 안정화 도모

- 02 | 제3기 집행부 구성, 제3대 남호경 회장 취임
- 08 |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및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 09 | 제6회 한우인의 날 개최(경기도 이천)
- 12 | 한우판매점 인증제 도입

2007 > 쇠고기 검역주권 회복 총력

- 02 | 미국산 쇠고기 고위급 기술 협상 규탄 기자회견
- 05 | 미국 광우병 통제국 판정 반대 프랑스 원정 기자회견 및 시위
- 09 | 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주관
 - | 제7회 한우인의 날 개최(대전광역시)
 - | 한우인 총결기 대회 개최

2008 > 한우고기 소비 안정화 기반 구축

- 04 |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고시 철회 요구 집회
- 07-08 | 농협사료 가격 인상 철회 촉구 공장 점거 집회
- 09 | 제8회 한우인의 날 개최(강원도 홍천)
- 11 |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제정

2009 > 한우산업 재도약의 해

- 02 | 제4기 집행부 구성, 제4대 남호경 회장 취임
- 03 | 제4기 전국한우협회 회장단 출범식 개최
- 06 | 쇠고기 이력제 홍보 한우 2009인분 무료 시식회
- 09 |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서울 팔레스 호텔)

2010 > 국민과 함께 하는 한우

- 02 | 구제역 방역요원 격려 및 지원
- 07 | 전국 한우지도자 대회 개최(충북 보은)
 - |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 소비홍보 행사 개최(출판기념식, 한우유람선 운영)
- 10 | 제9회 한우인의 날 개최(전북 익산)
 - | 암소 자율감축 결의대회

2011 > 한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02 | 구제역 방역활동 지원
- 05~07 | 범국가적 한우 소비촉진 행사 진행
- 07 | 한우인 생존권 총궐기 대회 개최
- 08 | 매주 금요일은 한우고기 먹는 날 선포

2012 > 한우농가 생존권 쟁취

- 01 | 청와대 한우반납 투쟁
- 02 | 제5기 집행부 구성, 제5대 정호영 회장 취임
- 04 | 제6대 김남배 회장 취임
- 05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검역주권 회복 촉구 식발, 단식투쟁
- 09 | 생존권 쟁취 한우인 총결기대회 개최
- | 제11회 한우인의 날 개최(충북 충주)

2013 > 소 값 회복 총력투쟁

- 03 | 제7대 이강우 회장 취임
- 06 | 한중 FTA 중단, 6차 협상 규탄 부산 결의대회
- 07 | 소값 회복 촉구를 위한 집행부 식발, 단식농성
- | 소값 회복·출하저지 한우인 총결기 대회 개최
- 09 | 제12회 한우인의 날 개최(울산광역시)

2014 > 한우발전대책 수립

- 03 | 한중 FTA협상 규탄 결의대회
- 04 | 피해보전직불금 청구 소송 제기
- 04~06 | 도별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 10 | 영연방 3개국 FTA 대책 촉구 결기대회 및 단식농성
- | 여야정 협의체 구성, 11대 합의사항 도출

2015 > 한우산업 비정상의 정상화 촉구

-
- 03 | 제6기 집행부 구성, 제8대 김홍길 회장 취임

 - | 농협사료 가격 인상 대응 및 저지(2015~2018)

 - 08 |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토론회 개최

 - 09 | 제13회 한우인의 날 개최(제주도)

 - | 김영란법 규탄 집회 개최(세종 정부청사)

 - 10 |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손해배상 소송

 - 11 | 농협공판장 출하예약제 개선 및 부산물 가격 정상화 촉구

2016 > 한우농가 권익보호 · 소득증대

-
- 01 | 직거래유통망 사업 시작

 - | 농협 비리 규탄 및 농가 우선 경영 촉구 기자회견

 - 04 | 농축협 위탁사육·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투쟁

 - 07 | 김영란법 저지 투쟁 집회(대구, 서울)

 - | 김영란법 개정 국회의원 동의 서명 운동

 - 10 | 농협공판장 부산물 계약 입찰제 전환 관철(가격 정상화)

2017 > 민족산업 한우로의 발돋움

- | | | |
|-------|--|-----------------------------|
| 01 | | 김영란법 조정안(농축산물) 10만원 상향 조정 |
| 03 | | 방역세 신설 저지 |
| 09 | |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릴레이 집회 개최 |
| | | 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7) 개최 주관 |
| 11~12 | | 한미 FTA 폐기 촉구(기자회견, 공청회) |
| 12 | | 미허가 축사 해결 촉구 총궐기 대회 개최 |

2018 > 한우산업 안정 및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

- | | | |
|----|--|----------------------------|
| 02 | | 미허가 축사 적법화 촉구 대회 및 단식 농성 |
| | | 제 7기 집행부 구성, 제9대 김홍길 회장 취임 |
| 04 | |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판로 확보 |
| 08 | |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11 | | 소값 안정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 마련 촉구 |
| 12 | | 네덜란드, 덴마크 쇠고기 수입 불허 요구 |

2019 > 안정된 한우산업·함께하는 민족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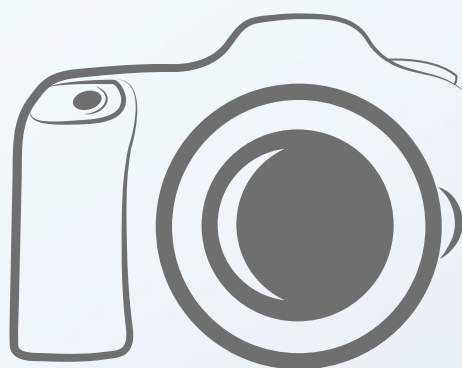
- 01 | 한우협회 전용사료(OEM) 출시
-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시행
- 03 | 김홍길 회장 축단협 회장 선출
- | 축산법령 위반 농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제재 완화 관철
- |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촉구
- | 안티축산 본격 대응
- 05 | 한우정책연구소 운영 개시
- 06 | 김홍길 회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 위촉
- 09 | 창립 20주년 한우인전국대회(경북 영주)

2020 >

- 02 | 여·야 주요 당대표 간담회
- | 한우산업 안정화 제도 당론 반영 건의
- 03 | 코로나19 한우농가 성금품 약 4억원 경상북도청 전달
- 05 | 한우 부산물 연중소비를 위한 HMR 제품 개발
- | 부산물 할인판매 및 한우 가정간편식 출시
- | 한우 플랫폼 사업 추진
- 07 | 경북·전북·울산 시·도지회 청년분과위원회 발족
- 09 | 태풍 수해 피해복구 지원 성금품 약 6억원 전달

살아있는 생산자 단체

전국한우협회 주요 운동사



1999



전국한우협회 설립운동 및 탄생

1999년 9월 14일 대전광역시 충무체육관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이규석 회장을 선출했다. 소 값 파동 속에서도 곳곳이 한우 사육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농가들에게 한우협회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농가가 창립 총회에 참가했고, 한우농민운동의 첫발을 내딛게 된 순간이다.





2001~2003

수입 생우 입식 저지 운동

처음으로 한우농가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대규모 수입생우규탄대회 모습. 2001년 시장개방은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소인 생우도 시장개방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2000년대 한우협회를 대표하는 농민운동 중 하나다.







2004~2005

한우자조금 설치 운동

생우수입반대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한우협회 중심의 연대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자조금설치에 성공한다. 경남, 울산, 부산에서 시작된 자조금 대의원 선거는 각 도를 순회하며 50두 이상 전업농가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되었고 마을 잔치를 여는 등 노력한 결과 자조금 도입을 위한 첫 단추인 대의원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조금 운동의 성공은 생우 수입반대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한우협회 중심의 연대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물이었다.





2006~20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한우만 한우로 판매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광우병 발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관철됐다. 이 운동에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힘을 얻었고,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요구했던 한우협회 안을 수용하여 지금의 원산지 의무표기제도가 정착됐다.



2011~2014

한우농가 생존권 쟁취 운동

한우인들은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가격 폭등에 항의하며 여의도와 음성공판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연이은 FTA 체결과 정부의 빈약한 농축산업 보호대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에 참여해 농업계에 목소리를 보냈다.



2012년에는 ‘전국 한우 청와대 반납운동’이 전개되면서 청와대로 한우를 반납하는 행렬로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다. 국회와 청와대, 아스팔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값회복을 위한 한우인들의 피눈물이 흘려졌다.





2015~2020

2015년대부터는 한우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자본의 사육진출,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정상화 등 한우협회의 독자적인 운동으로 농업계에 파란을 일으켰고, 의제를 공유하여 거대 농민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환경과 축산이 주로 충돌했던 격변의 시기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을 이어 받으면서 무허가축사 등 해결이 더뎠던 문제들을 매듭짓고 사실과 다른 안티축산 여론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한우산업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한우산업, 나아가 축산업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국가적 위기때마다 자발적인 성금 및 사회공헌 물품을 전달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민의 한우사랑에 보답하는 등 국민들이 한우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전국한우협회 기자회견 -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은 금지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농축협의 가축사육업 중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우산업 위한 법·제도적 보완 시급... 한우농가 단합된 힘 필요

수급안정 정부 도움 없다면 '우리 스스로'라도 조절 나서야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판결 얻어내 '보람'

협회 창립 21주년을 맞아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회장은 ‘농가들의 직접적 수익 향상’에 방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과 비육우가격안정제 도입 등 한우산업을 위한 제도 보완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우에 대해서도 농업과 같은 공익형직불금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우농가들이 횡성축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거대 조직(축협)이 휘두르는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힘 없는 농가들이 보호를 받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홍길 회장은 특히 한우산업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선 농가들의 단합된 힘과 하나된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한우농가들이 하나가 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홍길 회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한우협회 창립 2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제 마지막 남은 임기라는 점에서 한우산업과 우리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 협회는 기관, 단체들과 각을 세워온 것 같습니다.

전후방산업이 함께 윈-윈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료와 유통, 도축 등 여러 산업과 생산부문이 연결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분야에 이익이 집중될 때 농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단체 대표로서 이러한 상황을 그냥 묵과할 수 없었고, 면밀히 챙기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와 불협화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른 단체나 기관 입장에서 볼 땐 독선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 싶지만, 한우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 수장으로서 악역을 자처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는 없지만, 협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장님께서 협회의 역량 강화와 한우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회원가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셨습니다. 성과는 어떠한지, 또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요.

한우농가들을 위해 협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농

가들을 더욱 결집시킬 수 있을까에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같은 생각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를 따라다닌 질문입니다.

결국 농정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농가들의 직접적인 수익 향상'에 큰 목표로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kg당 5천원 수준이었던 헐값의 우지(소 지방) 가격을 2만5천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부산물가격도 공개 입찰로 전환시켜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협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 4년간 사료가격을 동결을 이끌어 냈고, 농가들의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데 적잖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소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농가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투플러스 등급과 관련해선 7, 8, 9번의 별도 표기를 요구해 관철시켰고, 육량기준 개정과 관련해선 C등급 출현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라면 한우농가들을 우리협회로 결집시킬 수 있다 생각했

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우농가의 회원화에는 한계가 있었고 솔직히 상실감도 느꼈습니다.

최근 의사협회 파업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이기심에 화도 났지만, 한편으론 자신들의 조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엔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우농가들도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더욱 단합한다면 우리가 숙원하는 모든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최근 자조금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조금은 말 그대로 농가들 스스로가 산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입니다. 자조금의 운영주체인 생산자단체에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이같은 시스템을 부정하고, 자조금을 장악해 정부의 역할부담을 자조금으로 집행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방역과 위생, 수급안정 등 정부의 예산이 투입 돼야 할 부분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자조금은 본연의 목적인 소비촉진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조금 사업은 생산자단체에게 자율권을 주되 간섭은 최소화하고, 정부의 예산부문 지출과 자조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구분해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회장님께선 한우농가의 소득 안정 차원에서 수급안정을 강조해 오셨습시다만, 올해 계획한 미경산우 수급조절 사업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는데요. 수급조절 사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정부의 제동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이 교체되면서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공급 과잉이 예견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낫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농가들 스스로 나서 수급안정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농축산물의 가격 특성상 한정된 소비에서 공급량이 미세하게 늘어나도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한우의 경우 고정적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급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농가들의 소득 안정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



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줄기차게 강조해왔지만 미경산우를 제대로 비육해 출하하면 거세우 못지않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암소시장을 세분화해 또 다른 소비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농가들 스스로 역시 미래를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송아지생산안정제도처럼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유명무실해 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입법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 사실상 발동이 불가능하게 변형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다시 개편하기 위해 지금도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이젠 분노를 느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 과장과 계장이 몇 명이 바뀌는 동안 오직 ‘검토’만 하다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토론회와 세미나만 수십여 차례입니다. 이런 식 이라면 축산경영과가 왜 존재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한우는 쌀과 함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대표품목이라는 게 정말 말뿐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제 한우산업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선 가임암소두수를 철폐하고 기준금액과 보전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규모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이 큰 소 값과 연동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진정 소규모 번식농가 보호에 있다면 ‘비육우 경영안정제’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축산만 제외되어 있는 공익형직불금과 관련해서도 농업과 함께 법 테두리안에 놓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산은 왜 늘 규제의 대상이어야 하며, 지원과 육성은 뒷전이어야 합니까.

사료이용과 출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성축협으로부터 제명당한 한우농가들이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금번 재판에 협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입니다. 하지만 횡성축협은 조합원들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라는 가장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조합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거대조직이 휘두르는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우농민들의 권익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조합원 제명과 관련해 횡성축협은 사료와 출하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는데, 조합원 제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날 경우 협회가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OEM 사료 사업의 선택권도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기에 협회의 자문 변호사를 투입하는 등 횡성축협을 상대로 함께 싸웠습니다.

단지 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탄원도 농식품부에 즐기치게 제기했습니다. 정부 역시 제명된 조합원들이 가입한 횡성한우협동조합과 횡성축협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와 농가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여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우산업은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우산업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특별히 생각나는 순간이나, 고마운 분들이 있을까요.

변함없이 한우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우산업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제나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뢰를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들께 한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님들께는 항상 마음의 빛을 진 기본입니다. 이규석 회장님, 남호경 회장님, 이강우 회장님 등 우리 협회의 밑알이 되신 전임 회장님들이 발자취에 제가 누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만, 언제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다 직접 중앙회에 와보니 직원들의 고충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열심을 다해주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의 한우농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우협회가 여전히 부족한 면도 많고 미숙한 점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단합할 때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협회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모으는 것만이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내고, 또한 농업과 축산의 대표단체로서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창립기념일이 한우농가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한한우’ 급여 후 1⁺등급 이상 출현율 100%

28개월령...출하 단축됐어도
도체중 늘고 등지방 얇아져
비용도 마리당 50만원 절감
“사료만 교체했는데” 대만족



이혜진
축산경제신문 기자



한우협회사료를 이용하며 컨설팅을 받고 있는 조리목장 조정운 대표

“7마리를 출하했는데, 6마리가 1⁺⁺등급을 받았다. 한 마리는 1⁺. 28개월령에 출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 마릿수 모두 좋은 등급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도체 중이 늘고 등지방 두께가 얇아졌다.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하면서부터 한우 사육에 방점을 찍게 됐다.”

충북 옥천 소재 조리목장 조정운 대표는 최근 7마리를 출하한 결과 6마리가 1⁺⁺등급을 받은 가운데 나머지도 1⁺등급을 받으면서 농장경영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개체관리, 음수관리, 조사료 급여까지 늘 해왔던 대로 사양관리를 했는데 1년 만에 성적이 확 달라진 조리목장. 유일하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 출하한 소들은 육성우 단계부터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한 개체들이란 것이다.

2019년 3월, 한우협회 옥천군지부가 한우협회 사료 공급을 시작한 이후 농장 내 사료를

전량 한우협회 사료로 교체한 조정운 대표. 송아지부터 육성우, 비육우까지 단계와 구간 별로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했더니 1년 새 농장 성적이 확 달라졌다.

조 대표는 “한우 사육을 시작한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한우협회 사료 덕분”이라면서 “개체관리 및 사양관리 등은 동일하게 하되 사료만 교체했을 뿐인데 등지방 두께가 훨씬 얇아지고 도체중도 늘어나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사료를 설계한 김종민 박사의 의견에 따라 구간별 프로그램에 맞춰 섭취량을 조절하고 급여했더니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 것.

1⁺ 이상 출현율 100%

2018년 총 22마리를 출하한 평균 성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평균 등지방 두께 13.6mm, 등심단면적 98.7cm², 444kg, 근내 지방도 6.4(No)을 기록했다. 2019년 출하된 26마리의 소도 성적은 비슷한 수준.

조 대표는 “2018년 출하축의 등급판정 성적을 살펴보면 22마리 가운데 1⁺이상을 받은 개체가 18 마리로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육량등급이 대체로 B, C에 몰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증체에 초점을 맞춰 열량을 높이다보면 C등급 출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한우협회 OEM사료를 급여하자 이 부분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올해 출하 성적은 월등하다.

등지방 두께는 1.2mm 얇아진 12mm, 등심단면적은 12.4cm² 넓어진 111.1cm² 도체중은 70kg이나 늘어난 506kg을 기록했다. 근내 지방도는 8(No).

조 대표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등급 출현율이 높은데다가 도체중이 쉽게 늘지 않았는데 사료를 교체하고부터는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다”면서 “어린송아지 구간부터 급여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하된 소들은 10~13개월령 부터 사료를 급여했기 때문에 진짜배기는 내년도에 출하될 것이라는 것.



2021년, 전 구간 한우협회사료 급여 개체 출하

내년 출하축 평균은 등심 단면적 120cm², 도체중 530kg이 목표다.

전 구간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한 소들이 출하되는 내년 이맘때가 무척 기대된다는 조 대표.

조 대표는 “송아지 단계에서부터 사료를 급여한 개체들의 발육상태를 보면 벌써 월등히 앞서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내년에 출하되는 개체들은 등심단면적과 도체중이 탁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하면서부터 사료비 절감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어 경제성도 더 높아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하면서부터 사료비도 마리당 50만원 가량 줄었다. 한우 거세우 기준 한마리가 출하시기까지 급여되는 사료량은 약 6ton.



사료포로 환산하면 약 240포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시중사료 대비 포당 2,000원이 저렴하다. 출하까지의 비용을 따져보면 마리당 50만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조정운 대표는 “모든 농장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순 없지만 우리농장의 경우에는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사료비도 절감하고 등급 출현율도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모든 구간을 한우협회 사료로 급여한 개체들이 출하되는 내년도에는 더욱더 명확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와 ‘믿음’으로 선택

믿음으로 한 선택이 40여년의 소 사육의 방점을 찍었다는 조정운 대표.

한우협회 OEM 사료로 100% 전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다.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면 거짓이겠지만, 생산자 단



체가 생산자를 위해 만든 사료를 허투루 했을 리 없다는 믿음이 큰 역할을 했다.

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함께 고쳐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조정운 대표는 개량, 사양관리, 사료가 소를 사육하

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량과 사양관리의 기본기는 충분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고.

40여 년간 매일같이 음수관리를 통해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사료 급여 시간을 ± 10 분을 넘기지 않는 게 조 대표의 철칙이다.

조정운 대표는 “시중사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어차피 사료 가격에 모두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두지 않았다”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시중사료와 대비해서 품질도 우수한 사료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한우협회 사료를 쓴다고 해서 농가가 손해 볼 이유도 없다. 한우협회 옥천군지부는 협회 사료를 취급하면서 시중사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군지부가 TMR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건이 좋은 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한 달에 한번 김종민 박사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농장에 큰 도움이 된다.

백년대계 꿈꾸는 ‘조리목장’

조정운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우협회 사료를 이용할 것이라며 많은 한우 농가들이 함께 참여해 생산비를 낮추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2세가 농장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조대표.

조정은 대표 또한 농장 성적을 끌어올리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들 조영욱씨와 함께 농장을 일궈나가기 위해서다.

5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농장을 꾸려나가고 있는 조 대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축산 환경 속에 아들이 함께 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거웠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던 과거와는 달리 체계적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한우를 기를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성적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한우협회 사료를 급여하면서 그 부분도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거치면서 현재 농장 터로 이전을 했고 모든 시설물들이 허가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

아들 조영욱 씨는 “아버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새로운 경험과 연구를 통해 농장을 더욱더 알차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거세우 출하 성적

연도	출하두수	등심단면적 (cm ²)	도체중 (kg)	육량지수	근내지방 (No)	육질 1B이상 출현된 도체중
2018	22	98.7	444.0	65.0	6.4	452.2
2019	26	102.8	453.6	65.8	7.1	448.3
2020	7	111.1	506.0	62.3	7.6	496.7

2020년 출하축(거세) 등급판정 결과(8월 28일 기준)

	1 ⁺⁺ A	1 ⁺⁺ B	1 ⁺⁺ C	1 ⁺ B	1 ⁺ C	소계
두수	5	0	1	0	1	7
출현율	71.4%	-	14.2%	-	14.2%	100%



한우협회 사료 급여 후 없었던 투뿔(1⁺⁺) 최고등급 출현

사료 맛도 좋고 한우 등급 1단계 상승 체감
“한우협 사료로 바뀌어 연간 수백만 원 절약”
병목현상 없는 직거래유통망 명절에도 수월
경매 수수료 없고 부산물도 제값받아 이익



박현욱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에서 20년 이상 한우를 사육한 권광희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협회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다. 2019년 한우협회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전국한우협회 사료는 시중 가격보다 싸지만 품질도 타 업체와 비교 시 손색이 없다는 평가에 권 씨는 사료를 바꾸는 모험을 한 것이다.

“사육환경 등 사료 외 다른 건 바꾸지 않았고요. 기존 타 업체 사료에서 전국한우협회 사료로 바꿨거든요. 1포당 1,000~1,500원가량 저렴하다고 해서 써봤는데 소들도 잘 먹고, 등급 판정 결과 통계를 살펴봐도 대략 한 등급 정도 올라선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바꾸길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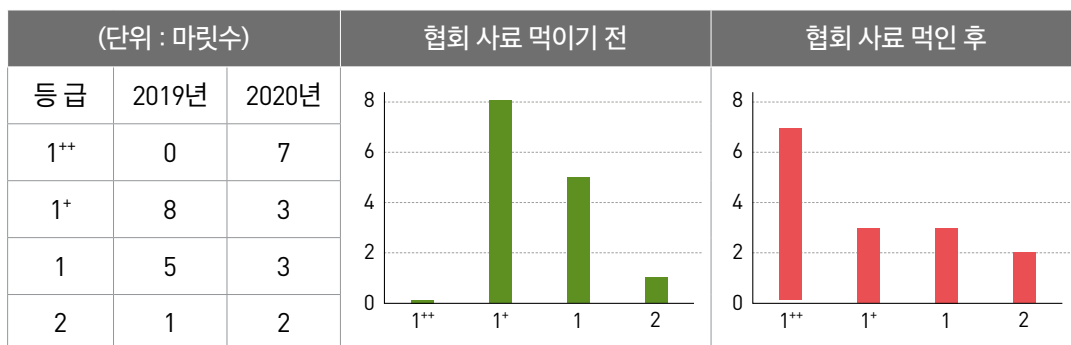
보통 한우 농가들은 기존 사료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사육 환경, 특히 사료와 같이 한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변하면 소득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를 떠 안

아야해서다. 또한 외상거래를 많이 하는 탓에 현금 유동성에 목말라 있는 농가로서는 부채를 일시에 해결해야 하는 등 오로지 사료 품질이나 가격보다 그외 제반사항과 관련한 사료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다.

“저 같은 경우는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고, 특정 업체에 부채도 없었기 때문에 협회사료로 바꾸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워낙 모험심이 강하기도 하고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사육 환경은 변화를 주지 않고 사료 하나 바꿨죠. 보통 한우 출하 시 등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투뿔(1⁺⁺)등급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거든요. 먹이기 전과 먹인 후를 비교해 보니 확실히 등급이 올라섰더라고요.”

권 씨가 제시한 수치는 놀라웠다. 비록 출하 두수는 많지 않았지만 사료를 먹이기 전인 2019년 1~4월(14마리)과 먹인 후인 2020년 1~4월(15마리) 출하한 한우의 등급 판정 통계에는 기존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던 투뿔(1⁺⁺) 등급에 7마리나 이름을 올렸다. 투폴 소들의 근내 지방도 넘버 8에서 최고 등급인 넘버 9까지 포진돼 있었다. 소들의 근내 지방 등급이 크게 높아진 덕택에 최종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는 게 권 씨의 설명.

권광희 씨의 2019년과 2020년 1~4월 출하 성적 비교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등급 판정 체계를 개편해 등급이 향상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내 지방 등급이 경계에서 조금 올라선 게 아니라 훌쩍 뛰어올라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소들도 사료를 바꾼 후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잘 먹는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키우는 소들의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놈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권 씨는 축산업계의 얼리어답터(제품이 출시될 때 가장 먼저 구입해 제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 군)로 평가받는다.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 데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 과거 홀스타인 젖소를 비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권 씨는 사육 환경 변화로 송아지 70마리를 잃고 한우 사육으로 눈을 돌렸다. 이후 밀소를 빼는 한우 번식을 주 종목으로 했지만 비육농가로 전향해 쏠쏠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민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환경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지만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그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어야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척박한 환경에도 적응하고 글로벌 시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 씨는 한우협회가 직거래유통망 사업을 시작할 때도 과감히 참여했다. 초기 사업은 검증이 되지 않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거래유통망의 장점만을 보고 선뜻 출하한 것이다. 2016년 협회에서 론칭한 직거래유통망은 초기 사업 진척이 쉽지 않았지만 권 씨와 같은 과감한 선택을 하는 농가들 덕에 지금은 협회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가 2017년부터 꾸준히 직거래유통망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한우 농민이 출하하고 싶어 하는 음성 공판장의 평균 가격을 준용해 주고 있어 일단 안심이고요. 소 부산물 가격도 음성 공판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돼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익을 봤으면 됐지. 대군 농가가 아닌 이상, 특히 양대 명절에는 한우 출하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모든 한우 농가들이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셈이죠. 직거래유통망은 모든 농민이 겪고 있는 판로에 대한 고민은 덜어준다는 점에서 존재만으로도 농가의 든든한 도움이 됩니다.”

직거래유통망을 운영하고 있는 한우협회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직거래유통망을 권장하지 않는다. 경매가 유리한 상위 랭크 농가에게는 농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만 제공한다. 박호경 직거래유통망 담당 대리는 “한번 직거래유통망을 이용해 본 농가들은 꾸준한 이용률을 보인다”면서 “한우 농민이라면 양대 명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출하가 쉽지 않을 때 직거래유

통망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매 수수료가 없다 보니 지금은 마리당 약 15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도 쓸쓸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씨도 “명절 같은 출하 성수기에는 음성 공판장 냄새도 맡기 힘들잖아요. 저 같은 소 규모 농가는 도축 스펙을 맞추기도 힘들고요. 직거래유통망은 언제라도 출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축 수수료도 10~15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한 차(8마리) 기준 100만 원 이상은 추가 수익이 된다”고 말했다.

직거래유통망은 농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2016년 론칭한 해에 2,272두 실적을 거둔 이후 2017년 2,903두, 2018년 3,366두 2019년 4,049두를 기록하면서 매년 성장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9월 4일 기준 1,974두를 기록하고 있다.





“협회 사료와 직거래유통망 2개를 모두 활용하는 농가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 농민들 스스로 자신의 농장 특성에 맞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한우 농가 스스로 개척한 사업으로 사육 주권을 획득한다는 대의도 있잖아요. 두 사업과 관련, 협회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한우 산업이 자본에 휘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원산지표시제, 이력제 등 지금은 공기처럼 생각하는 제도도 한우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공을 세웠잖아요. 두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되면 한우 농민에게 가장 이득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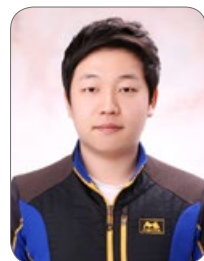




한우협회 사료로 두당 사료비 30만원 절감

품질대비 기호성도 뛰어나…
원가 절감 효과 톡톡

고급육 생산 위해 한우협회사료
지속 이용할 것



현병욱
월간한우 기자



지난해 1월 3일 전국한우협회에서 출시한 사료는 ‘시장견제’에 초점을 두면서 투명한 원가공개와 농가 중심의 사업운영 등으로 비육우 사료 시장에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우협회 사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우협회 사료를 통해 농장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한우농가가 있다. 전북 임실군 삼계면에서 거세우 70두, 육성우 70두, 번식우 60두 등 총 한우 200여두를 일관사육하고 있는 김필기 선진농장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15년 이상 한우협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필기 대표는 “한우협회사료가 출시된 지난해 1월부터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약 1년 8개월간 한우협회 사료를 직접 급여해보니 기존 사료에 비해 출하 시까지 두당 30만원 정도 사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소들의 기호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직접 생산한 조사료 사일리지.

김 대표는 또 “한우협회 한우협회 사료가 시장경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회에서 1원의 이익도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사료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 100% 신뢰하고 있다. 특히 사료배합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민 박사가 언제든지 사료 급여 요령이나 사양관리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상세하게 컨설팅 해줘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고 한우사육에 임하려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김 대표는 조사료도 친환경 순환농법을 통해 100% 자급하고 있다.

그는 현재 논 1만5천평과 조사료포 1만5천평에서 벼짚과 이탈리아안 라이그라스를 생산하여 조사료를 자급함으로써 생산비의 30~40%를 절감하고 있다. 여기에 한우협회 사료까지 이용하면서 생산비 절감 효과는 배가되고 있다.

조사료 100% 자급

이와 같이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김 대표는 처음부터 한우를 전업한 것이 아니라 1980년 벼농사, 수박, 특용작물 등 농사를 지으면서 한우 1~2마리를 사육했다. 그런 그가 한우로 전환하게 된 것은 농사는 기후와 시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한 반면 한우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00년 암소 60~70여두를 입식하면서이다.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려온 김 대표는 “그간의 한우사육 경험으로 미뤄볼 때 고급육을 목표로 하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육성기

다. 육성기 사양관리는 소 사육의 70% 이상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육성기 사양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한우사양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소 사육은 육성기(생후 3개월령~13개월령)의 사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육성기에는 반추위 발달 및 골격 형성이 이뤄져 소의 유전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농장의 사양관리도 육성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육성기에 충분한 양의 배합사료와 조사료 공급을 통해 반추위와 용모 등을 발달시키고 튼튼한 골격을 형성함으로써 소가 비육기에 에너지가 높은 배합사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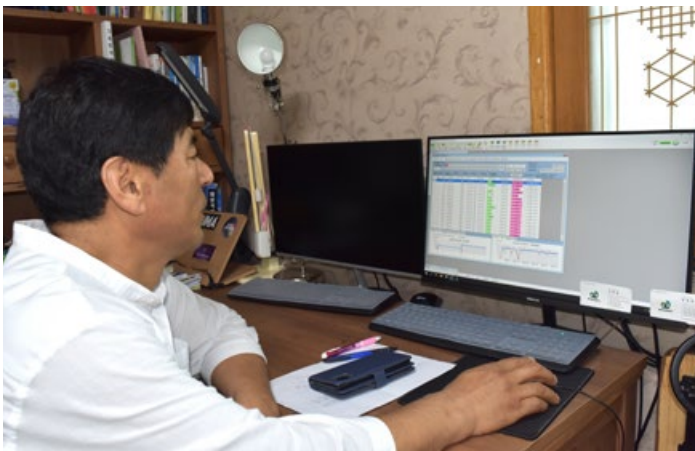
김 대표의 사양관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조사료는 전 구간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와 벼짚 등 자가 생산한 국내산 조사료를 무제한 급여하고 있으며, 갓 태어난 송아지는 질병 예방을 위해 생후 15일령에 콕시듐 약을 급여하고, 종합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다.

이후 2개월령 내외에 이유시킨 다음 6개월령까지는 배합사료를 무제한 공급하며, 7개월령부터 14개월령까지는 아침·저녁으로 1.5kg 내외로 급여하고 있다.

15개월령부터는 거세우의 경우 출하 전인 29개월령까지 사료량을 늘려 하루 8kg 내외에서 최대 12kg까지 개체별 상태에 따라 급여하며, 번식우는 15개월령에 첫 수정을 실시하고, 배합사료는 하루 동안 2kg 정도 급여하고 있다.

특히 임신 7개월령이 되면 돌아먹이기를 실시, 분만 후 1~2개월까지 배합사료량을 약

1kg 정도 증량해 급여하고 있다. 아울러 송아지 질병 예방을 위해 초산우는 분만 6~4주전에 로타·코로나 백신을, 경산우는 분만 한 달 전 종합백신을 1회 접종하고 있다.



기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김 대표.

엘리트카우 3두 보유



한우협회 OEM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김 대표가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배합사료의 경우 소들이 잘 섭취한다고 무제한 급여해봤자 100%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축분으로 나온다. 이는 농가에게 경제적인 손해”라며 “배합사료는 양을 조절하되 조사료를 무제한 급여해 영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암소의 성숙숙이나 체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을 시키면 조산, 난산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태어나는 송아지도 생시체중이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15개월령 내외에 첫 수정을 실시하니 조산, 난산의 걱정도 없을뿐더러 태어나는 송아지도 우량 송아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한우 개량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20여년 전부터 개량을 실시하고 있다. 개량을 할수록 그 유전능력을 파악해 기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세세하게 관찰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일지를 통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며 “기록을 통해 암소의 유전능력을 파악하고, 선발과 도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번식우는 말 그대로 번식이 중요하며, 1년 1산 실현과 송아지를 잘 돌보는 암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 암소로부터 후대축을 생산해 출하하면 항상 1⁺⁺등급의 성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정시키는데 6개월, 1년이 걸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번식을 잘하는 암소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암소 대부분이 1년 1산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운동장식 우사를 통해 번식우 활동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1등급 정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각 암소마다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개체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유전능력을 더욱 올릴 수 있는 맞춤형 정액을 선정·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농장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선정하는 엘리트카우를 3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식 우사

김 대표는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처럼 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이나 번식 저하를 불러 일으킨다”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소 스트레스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사 청결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김 대표는 음수조와 사료조는 수시로 청소하고, 우사바닥은 질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자주 깨끗이 청소해주고 있으며 소들의 운동을 위해 운동장식 우사를 고수하고 있다.



선진농장 전경.

그는 “소들이 조금이나마 운동할 수 있도록 한 우방 당 4~5마리씩이 아닌 3~4개 우방을 합쳐 약 14여두를 한 번에 사육하고 있다”면서 “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료 섭취량이 더 증가했으며, 질병 면역에 기여한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김 대표는 올해 지금까지 총 19두의 거세우를 출하해 1등급이상 출현율이 84.2%를 기록했으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6회 육질우수상, 7회 장려상, 8회 장려상, 9회 장려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김필기 대표는 “한우협회 사료 급여 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와 한우협회 사료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고|동|락

거창축협, 전국 최초 기숙형 한우 교육센터 구축

거창 한우를 위해 쏟은 열정, 한우산업 위해 매진



최창열 조합장

“한우협회와 협동조합 협력으로 한우산업 발전 견인”

김홍길 회장

“미래 한우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협동조합 모델” 찬사



거창축협(조합장 최창열)에서 실습장(축사)에서 최창열 조합장이 포즈를 취했다.

한우업계 최초로 ‘기숙형 현장 교육 센터’가 문을 연다.

거창축협(조합장 최창열)이 지난해 착공해 준공검사를 눈앞에 앞두고 있는 ‘한우 귀농인 교육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거창축협의 한우 귀농인 교육센터는 그동안 진행돼 온 귀농인 교육과정이나 운영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현장형 교육 방식이어서 한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한우협회도 거창축협의 한우전문경영인육성센터 운영과 미래 전문 한우인 양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협회와 축협이 파트너십으로 미래 한우산업 발전과 후계인력 양성에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철저한 기숙형 현장 교육

한우 귀농인 교육센터는 ‘기숙형 현장 교육’을 표방하며, 조합의 생축장 인근에 마련됐다.

단순한 일반 교육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기숙 현장에서 숙식하며 이뤄지는 교육과정으로, 초보 한우농가들이 사육과정에서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퇴근이 가능한 자 이거나 혹은 한우사육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다.

다만, 한우산업의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만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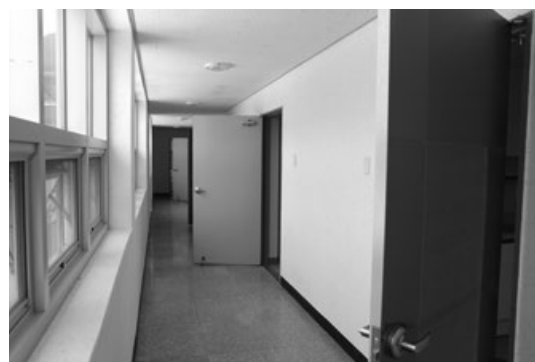
최창열 조합장이 기숙형 교육센터를 생각하게 된 것은 ‘현장에 바로 적응 가능한 교육’을 염두 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4개월, 실습교육 6개월로 구성됐는데, 이 기간 동안 교육자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동시에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더욱 특이할 만한 것은 10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에게 월 100만원의 교육비를



축사모습



기숙사 내부 모습



거창축협 교육센터 전경 모습. 최신 내부시설을 갖춘 가운데 축사와 매우 인접해 있어 눈길을 끈다.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기간 동안 본인 소유의 소를 직접 입식해, 실제로 사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에 더욱 관심과 열정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같은 환경은 귀농 후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수익이 없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귀농인의 이탈을 줄여, 실제 현장에 정착하는 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론과 기술교육으로 무장된 귀농인들이 탄탄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경우 이들은 한우사육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을 얻는 ‘소규모 개미군단’으로 육성될 수 있어, 고령화하고 있는 한우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열 조합장은 “한우산업 전체로 보았을 때 소규모 농가의 역할과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거창의 한우농가들을 위해 일해 왔던 조합의 역할에서 나아가 전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큰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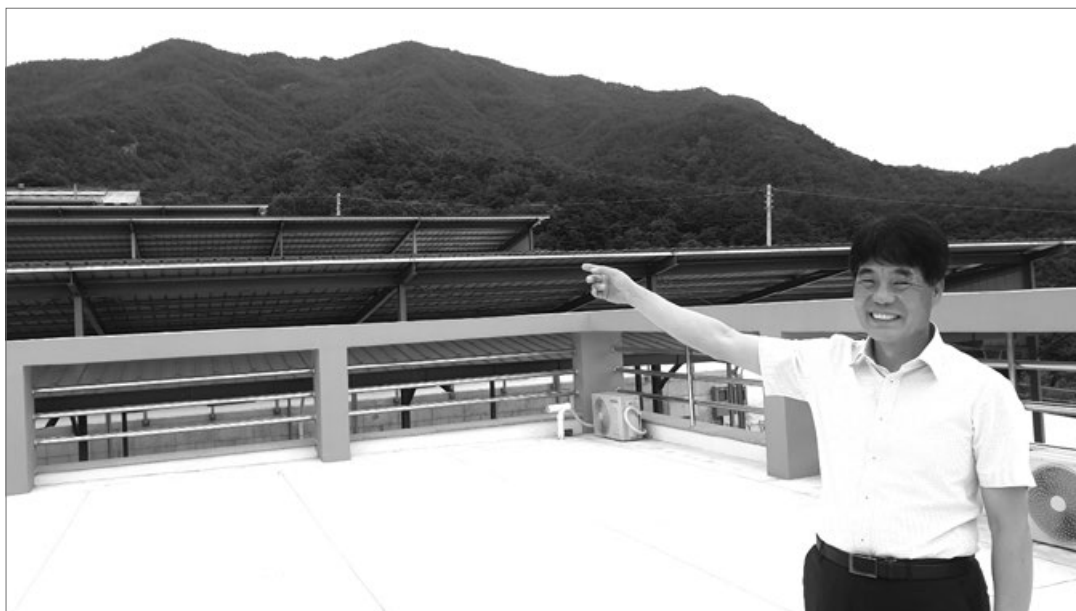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김홍길 회장과 최창열 조합장.

한우인들 ‘존엄성’ 존중받아야

최창열 조합장이 ‘기숙형 현장 교육센터’를 추진하게 된 데는 현장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한우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크게 작용했다. 귀농인 교육센터는 교육생들의 소들이 입식될 최신식 우사는 물론 교육인들이 지낼 공간인 쾌적한 기숙사가 눈길을 끈다.

최 조합장에 따르면 몇 년 전 한국농수산대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 등 노동력 착취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처럼 새롭게 한우사육을 시작하거나, 청년 한우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는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로 전락하는 한우인들의 교육 현장을 완전히 바꿔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합의 기숙형 교육센터 옥상에서 최창열 조합장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여건이 조금 낫다는 큰 농장에서 가게 되더라도 문제는 있다. 채우는 조금 나아질지언정 그 농장의 노하우는 물론 농장의 잘못된 부분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협동조합 상... 축협 역할 귀감

후계인력 육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우리 협회는 거창축협의 도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우농가들을 위한 운동체 한우협회가 교육생들의 멘토로 활동해달라는 거창축협의 요청에 중앙회에서는 거창축협과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김홍길 회장은 “생축장을 활용해 미래 한우산업을 이끌 인재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하겠다는 설립계획안을 전달받고 감격스러웠다”며 “이번 사례처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해 협회와 축협이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최창열 조합장은 한우전문경영인육성센터 설립을 주도하면서 한우인으로서 어떻게 살



거창축협이 전자경매시장.

아가야 할지, 진정한 한우산업에 대한 이념 교육까지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귀농을 하거나, 한우사육을 시작하는 젊은이나 처음 시작할 당시의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 한우산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한우인으로서 입문하는 최초 교육에 양분을 마련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이념교육을 통해 한우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진정한 한우인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교육 과정 속에는 전국한우협회의 역할 등에 대한 별도의 강의를 통해 한우인들의 주체성과 자주성 그리고 협회의 존재가치에 대해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조합 협력만이 한우산업 발전 도모

“한우인들에게 거창축협은 그저 고마운 존재입니다. 오로지 조합원만 생각하면서 조합원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한우협회를 동반자로 인식해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길 회장과 이강우 前회장, 김삼주 대구경북도지회장 등은 지난 7월 한우전문경영인육성센터를 건학했다.

이현태 한우협회 경남도지회 부회장은 “전국에서 이만한 조합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했다. 2008년 최창열 조합장이 한우협회 거창군지부장을 맡았을 당시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협회를 함께 일궈왔던 이 부회장은 “협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최 조합장이 조합을 맡으면서 한우협회와 조합의 협력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협회가 추진하는 일도 더욱 탄력을 받고, 조합원들의 소득은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협회와 조합의 역할, 관계에 대해 최창열 조합장은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 조합장은 한우산업이 제대로 서기 위해선 한우협회와 조합, 관 등 3개 단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갈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방식으로 한우산업은 물론 서로의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생산자들의 올바른 생각과 이념교육은 전적으로 한우협회가 맡고, 생산을 위한 모든 뒷받침은 조합이 맡아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창열 조합장(좌)과 이현태 경남도지회 부회장(우)은 내내 “한우협회와 조합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상대”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2008년 한우협회 거창군 지부장을 맡아 일하면서 한우인으로서의 역할, 한우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내내 “한우협회와 조합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의 상대”라고 강조했다.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아쉬운 부분은 서로가 서로의 조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한우협회와 조합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협력의 대상이 되려고 노력하면 한우산업은 그 시너지효과에 힘입어 분명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우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는 만큼 한우산업의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확대된 시야로 한우산업을 이해하고 협력해 간다면 한우산업의 미래는 그 어떤 산업보다 희망적이라고 자신합니다.”

사양·
컨설팅
01

한우사육 100문 100답

국립축산과학원



Q. 송아지 조기 이유 시 장·단점과 조기 이유를 위한 대용유 및 고형사료 급여 방법은?

어미소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번식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기에 어미로부터 격리할 때에는 인공포유를 실시해야 하는데 인공포유를 실시하면 어린송아지의 설사발생 억제로 송아지의 폐사율이 감소되고 치료 시 소요되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송아지를 균일하게 키울 수 있으며, 송아지가 어미로부터 조기에 분리되어 어미의 발정 재귀 일수가 단축된다. 분만직후 송아지를 격리할 때에는 생후 2~3일간은 필히 초유를 급여하되, 가능하면 초유에서 대용유로 교체하는 시기에 대용유와 초유를 1:1로 혼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상사료로 대용유(공정규격 CP 22% 이상, TDN 75% 이상)를 급여하는 경우 생후 1~2주령에는 대용유 급여량을 1일 400g 이하로 제한하고 2~3주령에는 500g 이하를 급여한다. 하루 급여량은 규칙적으로 2회 급여가 바람직하고 희석비율은 대개 물 7~9 : 대용유 1의 비율이고 물에 탈 때에는 42℃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희석과정에서 송아지에게 알맞은 온도가 되도록 한다.

어미로부터 조기에 격리되어 대용유로 사육한 송아지의 대용유 급여 중단은 일반적으로 생후 6주령을 목표로 하지만 주령보다는 주로 고형사료(인공유 및 목건초)의 섭취량에 의존하며 고형사료 섭취량이 1일 0.7kg 이상일 때, 또는 3일간 계속하여 평균 500g을 초과할 때 대용유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액상사료의 이유는 체중이 60~70kg 정도를 목표로 하되 생산비 절감을 중시할 때에는 6~7주령에, 그리고 원만한 상태에서 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주령에 이유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한다.

송아지 이유 전후 사양관리상의 주의할 점으로는 고형사료 섭취 시 고형사료 섭취량 및

음수량이 증가하므로 고행사료 급여량 증가(고형사료 급여량 상한선 : 볏짚 급여 시 체중의 2%)와 깨끗한 물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단, 고행사료 섭취량 증가로 연변이 발생하게 되면 급여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분의 상태가 정상이 되면 다시 증량시켜준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Q. 인공수정 적기는 언제인가?

인공수정 시점은 수태율이 가장 높은 시점인 배란시기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배란은 발정종료 후에 일어나는데 발정 시작부터 배란까지는 29~32시간이며, 발정종료 후 8~11시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할 때는 발정이 와서 12시간 정도는 외부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발정을 최초 관찰하고 12~18시간 사이에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다.

이처럼 발정을 발견한 후 12~16시간에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수태율이 가장 양호하나 개체에 따라서는 발정 지속시간이 7~8시간 정도로 짧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2~3일까지 유지될 정도로 긴 경우도 있으니 개체별 번식기록을 철저히 하여 인공수정 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 아침(9시 이전)에 발정징후를 발견한 소는 당일 오후가 수정적기이며, 다음날은 늦다. 오전 중(9~12시)에 발정징후를 발견한 소는 그날 저녁 또는 그다음날 이른 아침이적기이며, 오전 10시 이후는 늦다. 발정징후를 오후에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이 적기이며, 오후 2시 이후는 늦다.

발정암소의 외음부는 발정전기부터 차츰 붓기 시작하여 발정 최성기에 가장 많이 부어 있고 발정 종료기에는 점차 가라앉게 되며 점액의 양에 있어서는 발정전기에는 분비량이 많고 발정말기로 갈수록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발정전기에는 점액의 점도가 높아졌

다가 다시 낮아지나, 수정적기에는 점도가 약간 증가하게 된다. 승가 행동은 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지만 발정중기나 발정말기에 들어가면 승가를 허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다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가 외관상으로 수정적기에 해당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63-330-0625)

Q. 발정이 잘 오지 않거나 임신이 되지 않는 번식장애의 원인은?

한우의 번식장애 발생률은 11.9~16.2%로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증상으로는 무발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약 70%를 차지한다. 번식장애의 유형은 난소질환이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번식장애의 원인으로는 생식기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해부학적 이상, 호르몬 분비 이상, 사양관리의 불량, 미생물 감염, 부적절한 수정 및 번식검사 기술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번식장애의 60~70%가 사양관리 불량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운동부족과 농후사료의 지나친 급여로 과비육된 소는 난포발육장애, 난소낭종 등의 번식장애에 걸리기 쉽고 발정의 미발견이나 수정 및 분만 시의 자궁감염 등도 주요한 원인이 된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63-330-0625)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태풍,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한우 질병들



정병열 _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수의학박사



태풍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갑작스러운 폭우로 땅이 패이게 되면 땅속 깊숙이 있던 세균들이 지표면으로 노출되며 이러한 세균들에 의한 탄저, 기종저 발생이 많다. 아울러 장마철에 홍수가 발생하면 농장 내로 빗물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에 있던 여러 악성 세균들과 부패한 동물 사체에 있던 독소들이 함께 유입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태풍,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 중 최근까지 피해가 많은 보툴리즘,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종저, 드물게 발생하는 탄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들 세균의 공통점은 아포를 형성한다는 것인데, ‘아포(spore)’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씨앗과 같은 개념이다.

세균은 적절한 수분, 온도, 영양분이 없어 발육에 불리한 환경이 되면 후일을 기약하면서 수십 년간 죽지 않고 아포에 싸여 겨울잠을 잔다. 그러다가 발육하기 좋은 여건이 되면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아포형 세균’들은 아포를 벗고 발육과 번식이 가능한 ‘영양형 세균’이 되는 것이다.

세균이 영양형일 때는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지만, 아포형이 되면 소독제, 끓는 물에서도 살아남는 아주 독한 세균이 된다.

표 1. 태풍,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들의 방역요령

질병명	세균 발육 조건/특징	질병 발생	증상	방역요령
보툴리즘	혐기/아포	독소를 먹음	기립불능 후 수일 내 폐사	양계장, 매몰지 인근은 위험지역, 젖은 사일레지는 일광소독, 백신접종
기종저	혐기/아포	세균을 먹음	급사	과거 발생지역은 위험지역, 백신접종
탄저	호기/아포	세균을 먹음	급사	과거 발생지역은 위험지역, 백신접종

※ 혐기(嫌氣)성 세균: 공기 즉 산소를 혐오하거나 싫어해서 산소가 없는 밀폐 환경에서만 자라는 세균. 혐기 예시) 가족으로 싸인 동물 사체, 밀폐 용기, 압착하여 비닐로 밀폐

※ 호기(好氣)성 세균: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 호기 예시) 일반적으로 공기에 노출된 환경

01 보툴리즘

보툴리즘은 보툴리눔 균(*Clostridium botulinum*)이 만든 독소를 소가 먹어서 기립불능을 보이다가 수일 이내 호흡근육 마비로 폐사하는 중독증이다. 즉 보툴리즘은 독소에 의한 중독이므로 소에게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하더라도 전혀 치료되지 않는다.

보툴리눔 균이 만든 독소는 청산가리의 약 1,000만 배 이상이며 지구상의 독소 중 랭킹 1등이다. 보툴리즘을 진단하기 위하여 기립불능된 소를 부검하더라도 특별한 병변이 없다. 위 내용물이나 혈액에서 소가 먹은 보툴리눔 독소를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위장 내의 정상 세균들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의 신경조직 이동 등으로 이 또한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는 원인불명으로 소가 3두 이상 폐사하면 가장 먼저 보툴리즘을 의심하고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농장 인근에 야적된 곤포 사일레지. 홍수에 젖은 곤포 사일레지를 일광소독하면 보툴리눔 독소가 파괴된다. 한편 곰팡이가 핀 곤포 사일레지는 발효가 부실하여 알칼리가 되기 쉬우며 결국 보툴리눔 균 발육과 독소 분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장마철에는 보툴리즘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목장 인근에 살처분 매몰지 또는 양계장이 있으면 사체 내에서 발육한 보툴리눔 균이 주변 지역을 독소로 오염시키고 이러한 독소들이 홍수와 함께 곤포 사일레지에 유입되거나 목장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홍수에 젖지 않은 상단의 곤포 사일레지를 소에 먹이면 폐사가 없는데 홍수에 젖은 하단의 사일레지를 먹이면 소가 폐사되었다가 다시 상단 사일레지는 정상, 하단은 폐사 등을 반복하기도 한다.

아울러 음수통에 의한 보툴리즘 발생도 많으니 여름철에는 물통을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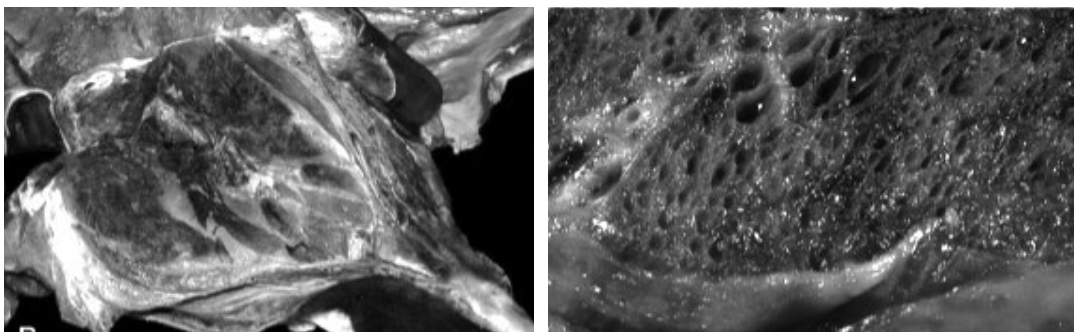
02 기종저

기종저는 양, 염소보다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인데, 뒷다리 근육에 많은 기포가 생기므로 공기가 있는 종창이라는 의미로 ‘기종저(氣腫瘤)’라고 하며, 뒷다리 근육이 암적색 또는 검게 변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검은 다리(blackleg)’라고도 한다.

토양에 있던 기종저균(*Clostridium chauvoei*)을 섭취하거나, 또는 기종저균에 오염된 토양이 축사 내의 건초, 사일레지 등에 묻으면 기종저가 발생한다. 즉 기종저균의 섭취가 기종저 유발의 주된 원인인데 감염된 소가 건강한 소에게 직접적으로 기종저균을 전파시키지는 못한다.

외국 사례에 따르면 기종저 발생과 장마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이유로 첫째, 토양 중에 있던 기종저균들이 장마로 인하여 널리 흩어지게 되며 둘째, 장마가 지속되면 토양은 물로 덮여 산소가 없는 혐기조건이 되기 쉬우므로 혐기성 균인 기종저균의 발육에 매우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기종저균은 아포를 형성하여 땅속에서 오랫동안 사멸되지 않고 생존하다가 균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어 소의 근육을 괴사시키며 폐사를 유발한다. 아포형 기종저균은 전 세계적으로 토양 중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백신 접종되지 않은 소 또는 백신이 잘못 접종된 소에서 기종저 발생이 많다.



주요 기종저 병변. (좌측) 뒷다리 근육에 괴사성 혈액성 근육염이 나타난 기종저 병변; (우측) 근육에 수많은 기포가 형성된 기종저 병변 (출처; Abreu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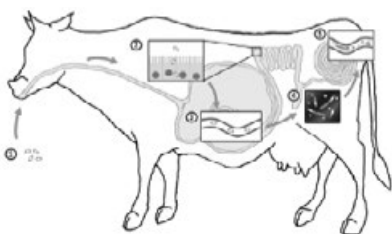


그림 3. 소의 기종저 발생 순서도. ① 토양, 사일리지 등에 오염된 아포형 기종저균을 먹는다. ② 기종저균은 장의 점막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다. ③ 아포형 기종저균은 신체 여러 조직으로 이동하는데 주로 골격근에 잠복한다. ④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근육의 산소농도가 낮아지면 아포가 발아하는데 이때 기종저균은 강력한 독소를 산생하여 괴사나 염증을 유발한다. ⑤ 기종저균이 증식하여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되면 독혈증으로 소가 폐사한다.

기종저는 주로 6개월~2세 미만의 백신 접종되지 않은 소, 방목 소에서 많이 발생한다. 기종저는 소가 급사하거나 증상이 나타난 다음 날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폐사하지 않고 장기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로 졸음, 식욕부진, 움직이기를 거부하거나 절룩거림, 횡와자세로 눕는 경우가 많다. 피부 근처의 근육이 손상받으면 종창과 염발음(모발을 비비는 듯한 소리)이 나타난다. 기종저와 감별해야 할 질병으로는 가스괴저(또는 악성 수종)가 있는데 육안적으로는 기종저와 구분이 어려우므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백신은 매우 효과가 좋으므로 발생하는 지역은 매년 보강접종이 권장된다.

03 탄저

탄저는 탄저균(*Bacillus anthracis*)에 의해 유발되는데 초식동물에서 높은 치사율을 나타낸다. 사람의 피부에 탄저균이 감염되면 피부가 석탄처럼 검게 변한다고 하여 탄저(炭疽)로 불린다. 탄저균은 동물의 몸 밖으로 노출되어 산소와 접촉하면 아포를 형성한다. 따라서 탄저로 폐사한 소를 땅에 매몰하는 것은 탄저균을 땅속에 묻는 것과 같은데, 외국 사례를 보면 수십 년 동안 탄저 발생이 없는 지역이라도 오래전에 사체를 묻었던 땅이 폭우, 산사태 등으로 뒤집혀서 탄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한편 동일지역일지라도 연도별 강수량과 탄저 발생률을 보면 장마가 많은 연도의 탄저 발생률이 월등히 높는데, 이는 장마로 땅속 탄저균이 지표면으로 노출되고 이를 소가 먹어서 탄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들은 주로 탄저균으로 오염된 목초지에서 풀을 뜯을 때 아포를 먹거나 흡입함으로써 탄저에 걸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1~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특별한 증상없이 소들은

급사한다. 부검 시에는 엄청나게 커진 비장이 관찰된다. 만약 가축이 급사하지 않고 장기간 탄저에 감염되면(주로 말, 돼지) 열이나 부종 등이 나타난다. 특히 탄저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폐사축이 단순 비강출혈 등을 보이면 수의사는 폐렴을 의심하게 되고 폐사된 소를 야외에서 부검하여 목초지를 탄저균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다. 소들이 코, 입, 항문 등에 피를 흘리며 폐사하였으면 축주는 탄저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러한 상황을 수의사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한편 탄저는 ‘사람동물공동감염병’으로서 생물무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의 여러 기관에 탄저균이 담긴 편지가 배달되어 이를 흡입한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탄저는 사람에게서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피부형, 먹어서 감염되는 소화기형, 그리고 흡입하여 발생하는 호흡기형이 있는데 이들 중 호흡기형이 가장 치사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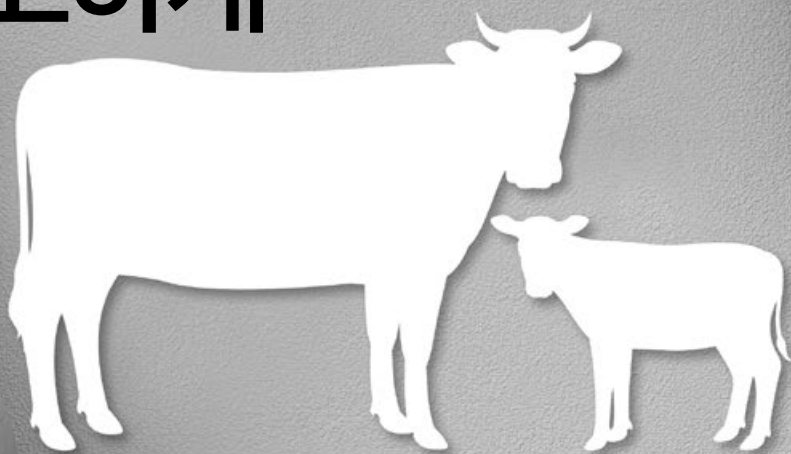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탄저 발생은 ‘토양 → 가축 → 토양’의 순환고리를 보인다. 비록 과거에 탄저가 발생한 지역에서 수십 년간 탄저 발생이 없다 하더라도 토양의 발굴이나 홍수 등으로 토양 교란이 일어나면 탄저가 재발할 수 있다. 즉 발생지역은 오랫동안 위험성이 상재하므로 백신, 토양 오염 최소화, 사체의 안전한 폐기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04 맺음말

도시·농촌, 여름·겨울에 상관없이 아포형 세균들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을 박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아포형 세균들은 소독약을 뿌려도 사멸되지 않으므로 농장의 차단방역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보툴리즘, 기종저, 탄저 등은 일단 발병하면 소들이 대부분 폐사하며 장마, 태풍에 의하여 농장 내로 이들 세균이나 독소의 유입 가능성이 크므로 방역관리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 보툴리즘, 기종저, 탄저는 백신이 있으니 이들 질병이 발생했었던 지역은 주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제는 가축재해보험으로 대비하자!

소 잃기 전 외양간 ‘견고하게’



이하현 _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2부장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어 농가가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총 33차례 선포되었으며, 축산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천여만마리의 가축이 폐사하여 축산업도 자연재해에 극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따른 축산농업인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재생산 활동 복귀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이라는 정책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 소(牛)축종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16개 축종(소, 말, 돼지, 가금 8종, 기타 5종)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소’축종을 중심으로 정부의「가축재해보험」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등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의 50%(5천만원 한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0%~4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대상 ‘소(牛)’의 연령은 한우·육우·젖소 모두 생후 15일령 이상 ~ 13세미만(단, 유량검정젖소의 경우 만 24개월 이상 ~ 만 9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보상하는 사고는 ①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폐사 ②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폐사 ③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 등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질병관련 사고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축사화재 등 재해위험에 추가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① 소도체결합보장, ② 축사, ③ 화재대물배상책임(축사특약 가입시), ④ 구내폭발위험보장 등의 특별약관을 선택적

으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시 ‘소’축종으로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를 받아야 하며, 보험가입은 사육하고 있는 ‘소’축종 전부, 즉 포괄가입(1년이내 출하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소 이력제 현황의 70%이상 가입하는 경우 포괄가입으로 간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소’축종은 10,694 농가, 43만두가 가입하여 가입률은 12.2%로서, 돼지(97.7%)나 가금(95.0%)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이 중 6,328농가에 대하여 64,723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당 평균 1천만원 정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가입과 수령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매년 가입률과 보험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하려는 ‘소’사육 농가의 경영가적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보험가입			보험금 수령		
	농가수 (호)	두수 (천두)	가입률 (%)	농가수 (호)	보험금 (백만원)	농가당
2017년	7,167	310	9.8	4,308	36,490	8.5
2018년	8,618	356	10.3	5,277	52,168	9.9
2019년	10,694	430	12.2	6,328	64,723	10.2

올해 8월에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7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소’축종 보험가입 농가중 20건, 1,079마리의 피해상황이 접수되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제8호 태풍 “바비”와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달아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이제는 자연재해가 축산경영상의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가 되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

과를 거양할 수 있는 탁월한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9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소 잃기 전 외양간을 고치자. 이제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자. 예로부터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有備無患)’고 하지 않던가.

가축재해보험 ‘소’축종 상품 요약

구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 소 도난에 의한 손해 •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종모우에 한함) 	지급할 보험금의 20%, 30%, 40%
특별약관	소도체 결함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지급할 보험금의 20%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50만원 (화재 제외)
	화재대물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화재로 인해 인접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축사 특별약관 가입자만 가입가능 	
	구내폭발 위험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수해와 태풍 피해 지역 성금품 6억원 전달

우리 협회와 한우자조금은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지역에 약 6억여원의 성금품을 지원한다.

수해와 태풍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협회 중앙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273백만원을 모금했다. 여기에 한우자조금 316백만원 상당의 한우곰탕 등 총 약 6억원을 지원한다.

앞서 우리 협회는 8월 20일 전국 도지회장들과의 회장단 회의에서 한우산업이 국민들의 사랑으로 발전해 온 만큼 금번 수해와 태풍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작지만 아픔을 함께 한다는 뜻에서 성금과 지원물품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의 정성이 담긴 6억원의 성금품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과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곰탕을,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는 성금품을 지원한다.

김홍길 회장은 “연이은 태풍의 영향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해복구에 어려움이 크지만, 국민들의 한우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한우농가들의 온정이 전해져 이재민들의 상처 치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산업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우농가 피해 및 특별 재난지역 현황

도지회	폐사·실종(두/농가수)			축사파손	퇴비사파손	기타 (침수, 축대붕괴, 토사유입, 진입로 유실 등)
	송아지	큰소	계			
경기				2 [회원 2농가]		4 [회원 4농가]
강원	3두 [회원1두] [비회원2두]		3두 [회원1두] 1농가 [비회원2두] 2농가	1 [회원1농가]		9 [회원5농가] [비회원4농가]
충북	8두 [회원6두] [비회원2두]	1두 [회원1두]	9두 [회원7두] 2농가 [비회원2두] 2농가		2 [회원2농가]	77 [회원 59농가] [비회원 18농가]
충남	3두 [회원2두] [비회원1두]		3두 [회원2두] 1농가 [비회원1두] 1농가			3 [회원 2농가] [비회원 1농가]
전북	4두 [회원4두]	383두 [회원198두] [비회원185두]	387두 [회원202두] 16농가 [비회원185두] 21농가		1 [회원1농가]	36 [회원 29농가] [비회원 7농가]
전남	송아지, 큰소 구분안됨	906두 [회원391두] [비회원515두]	906두 [회원391두] 25농가 [비회원515두] 59농가	5 [회원 1농가] [비회원4농가]		51 [회원 13농가] [비회원 38농가]
경북						5 [회원 5농가]
경남		78두 [회원17두] [비회원61두]	78두 [회원17두] 1농가 [비회원61두] 3농가	1 [회원 1농가]		22 [회원 22농가]
울산	피해 접수 없음					
제주	피해 접수 없음					
계	18두 [회원13두] [비회원5두]	1,368두 [회원607두] [비회원761두]	1,386두/134농가 [회원620두] 46농가 [비회원766두] 88농가	9 [회원 5농가] [비회원 4농가]	3 [회원3농가]	207 [회원 139농가] [비회원 68농가]

※ 한우 폐사·실종농가는 축사파손, 퇴비사 파손, 기타와 중복 집계하지 않음.

특별 재난지역

[38개 시·군·구] 경기(안성시, 이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단양군), 충남(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예산군), 전북(남

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나주시), 경남(하동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광주(북구, 광산구)
 [36개 읍·면·동]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성금품 모금 현황

구 분	모금액(원)	내 역	비고
중앙회	15,614,000	김홍길, 하태문, 김학수, 김충완, 한우공감밴드, 협동조합농축식품유통, 대한싸이로(주), 대한뉴팜(주), GMD컨설팅, (주)엔에프아이트레이딩, (주)바울글로벌, 대명에이지영농조합, (주)아이리스, 장기선, 김창호, 김경희, 김영원, 김정환, 김한중, 계재철, 박선빈, 서영석, 오경재, 조해인, 최명호, 한민수, 황엽, 김재광, 목철균, 박호경, 윤승원, 이동명, 이동주, 임빛나라, 지혜선, 황남현, 용우진, 협회	
경기	2,101,000	도지회, 이연목, 연천군지부	
강원	7,800,000	도지회, 영월동강한우, 강릉시지부, 삼척시지부, 양양군지부, 영월군지부, 원주시지부, 정선군지부, 춘천시지부, 홍천군지부, 화천군지부, 횡성군지부	
충북	3,650,000	도지회, 이종범, 이완순, 김문흠, 이우택, 청주시지부, 괴산군지부, 영동군지부, 진천군지부	
충남	10,910,000	도지회, 금산군지부, 논산시지부, 당진시지부, 서산시지부, 서천군지부, 세종시지부, 천안시지부, 청양군지부, 홍성군지부, 공주시지부, 태안군지부	
전북	63,910,000	도지회, 정윤섭, 김창희, 국원호, 이근수, 조영호, 진택섭, 한양수, 박일진, 김필기, 최송화, 임정수, 완주한우협동조합, 전북한우협동조합, 전북미경산한우협동조합, 장수젊은한우영농조합법인, 진안홍삼한우영농조합법인, 이상춘(주), 정읍시지부, 남원시지부, 완주군지부, 군산시지부, 김제시지부, 고창군지부, 임실군지부, 순창군지부, 장수군지부, 무주군지부, 익산시지부, 진안군지부	

구 분	모금액(원)	내 역	비고
전남	52,800,000	도지회, 안규상, 류중원, 송인주, 종축개량협회, 해남군지부, 영암군지부, 보성군지부, 곡성군지부, 장흥군지부, 고흥군지부, 영광군지부, 담양군지부, 함평군지부, 강진군지부, 화순군지부, 나주시지부, 신안군지부, 여수시지부, 완도군지부, 장성군지부, 구례군지부, 무안군지부	
	16,448,000	장흥 : 암소1두, 한우장조림 화순 : 이불	
경북	58,875,000	도지회, 김삼주, 이철호, 피준수, (주)대경오엔티, 경북도축협회, 보원영농조합법인, (주)창조, 봉화군청년분과, 안동시지부, 의성군지부, 영천시지부, 상주시지부, 영주시지부, 예천군지부, 구미시지부, 청도군지부, 봉화군지부, 경주시지부, 군위군지부, 대구시지부, 달성군지부, 문경시지부, 성주군지부, 고령군지부, 김천시지부, 포항시지부, 영덕군지부, 청송군지부	
	32,375,000	TMR사료	
경남	7,110,000	도지회, 강호경, 안성빈, 한기웅, 도임원, 거제시지부, 거창군지부, 고성군지부, 김해시지부, 남해군지부, 밀양시지부, 사천시지부, 산청군지부, 양산시지부, 의령군지부, 진주시지부, 창녕군지부, 창원시지부, 통영시지부, 하동군지부, 함안군지부, 함양군지부, 합천군지부	
울산	2,730,000	시지회, 서울산지부	
계	274,323,000		

성금품 기부 계획

(단위 : 원)

구 분	성금 모금액	전달·기부(안)			비 고
	물품	성금 전달액	송아지, 사료, 물품	계	
중앙회	15,614,000	-	-	-	
경 기	2,101,000	2,500,000	-	2,500,000	
강 원	7,800,000	8,500,000	-	8,500,000	
충 북	3,650,000	9,000,000	-	9,000,000	
충 남	10,910,000	11,500,000	-	11,500,000	
전 북	63,910,000	81,500,000	12,075,000	93,575,000	
전 남	52,800,000	91,000,000	26,598,000	117,598,000	
	16,448,000				
경 북	58,875,000		-	10,000,000	
	32,375,000				

구분	성금 모금액	전달·기부(안)			비고
	물품	성금 전달액	송아지, 사료, 물품	계	
경남	7,110,000	11,500,000	10,150,000	21,650,000	
울산	2,730,000	-	-	-	
합계	274,323,000	225,500,000	48,823,000	274,323,000	

성금품 및 재난지역 기부 계획

(단위 : 원)

구분	성금 모금액 (A)	재난지역지원 (B) (한우곰탕)			합계 (C=A+B)	비고
	물품	피해 한우농가	지자체 전달	소계		
경기	2,500,000	1,650,000	25,674,000	27,324,000		
강원	8,500,000	3,575,000	25,674,000	29,249,000	37,749,000	
충북	9,000,000	22,825,000	28,556,000	51,381,000	60,381,000	
충남	11,500,000	1,375,000	19,910,000	21,285,000	32,785,000	
전북	81,500,000	20,350,000	28,556,000	48,906,000	142,481,000	
	12,075,000					
전남	91,000,000	38,500,000	48,730,000	87,230,000	204,828,000	
	26,598,000					
경북	10,000,000	1,375,000	8,382,000	9,757,000	19,757,000	
경남	11,500,000	7,425,000	22,792,000	30,217,000	51,867,000	
	10,150,000					
울산	-	-	5,500,000	5,500,000	5,500,000	
제주	-	-	5,500,000	5,500,000	5,500,000	
합계	274,323,000	97,075,000	219,274,000	316,349,000	590,672,000	

축산농장 자가진단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농가 스스로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축산농장 자가진단표'가 제작됐다.

자가진단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은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 등을 통합하여 안내한다.

축산농장 자가진단표(한·육우)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축 산 업 영 업	축 산 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이수하였습니까?		
사 육 시 설	축 산 법	● 가축사육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성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어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사육시설	가축분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예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설비	가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500㎡이하의 한육우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방역시설	가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가 진단항목			진단결과	
			○	×
농가 준수 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 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 이내에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위생 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		
악취 관리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축산관측은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실시됩니다. 육계 관측은 매월 25일에 발표되며 그 외의 축종에 대한 관측은 매분기(2,5,8,11월) 25일에 발표됩니다.

사육

2022년까지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가임암소 증가로 송아지 생산이 늘어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0년 한우 사육 마릿수 : 가임암소 마릿수와 1세 미만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4.0% 증가한 320만 3천 마리
 - 1세 미만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3.9% 증가한 94만 2천 마리, 가임암소 3.9% 증가한 154만 2천 마리
- 2021년 327만 2천 마리(전년 대비 2.2% 증가), 2022년 331만 4천마리(1.3% 증가)

도축

도축 마릿수 증가폭 확대

- 2020년 도축 마릿수 : 사육 증가로 전년 (76만 5천)과 평년(74만 8천)대비 증가한 78만 3천 마리
 - 추석 성수기(추석 전 4주간, 8.31.~9.29.) 도축 마릿수 : 10만 2천~4천 마리로 전년 대비 2~4% 증가
 - 4분기(9~11월) 도축 마릿수 : 21만 6천 마리로 전년 대비 18.3% 증가
- 한우 도축 마릿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84만 5천 마리, 2022년 89만 1천 마리

- * '20. 4분기 송아지 입식 시 도축이 예상되는 '22. 4분기 출하량 증가로 도매가격 하락 예상 ⇒ 신중한 입식결정 필요
- * 한우 사육 마릿수 조절을 위해 자율적 암소 감축 필요

수급 및 가격 동향

사육 마릿수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가임암소 증가, 육우 증가

- 한육우 사육 마릿수 : 333만 마리(전년 대비 2.7% 증가)
 - 한우 : 317만 5천 마리(전년 대비 2.6% 증가)
 - 한우(가임암소) : 148만 마리(전년 대비 4.2% 증가)
 - 육우 : 15만 4천 마리(전년 대비 4.1% 증가)
- 한육우 사육 농장수 : 9만 3,133농장(전년 대비 1.9% 감소)
- 농장당 사육 마릿수 : 35.8마리(전년 대비 4.7%(1.9마리) 증가)

■ 한육우 연령별 사육마릿수와 사육 농장수

단위: 천 마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년 대비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한우 사육 마릿수	1세 미만	848	861	870	890	898	906	922	-0.4
	1~2세	827	825	824	826	838	852	862	6.3
	2세 이상	1,344	1,276	1,214	1,377	1,379	1,321	1,254	2.4
	총계-①	3,020	2,962	2,908	3,094	3,116	3,078	3,038	2.6
가임암소 마릿수	1,432	1,427	1,396	1,420	1,474	1,484	1,445	1,480	4.2
육우 사육 마릿수-②	148	151	151	148	153	159	160	154	4.1
한육우 사육 마릿수 - ①+②	3,168	3,113	3,059	3,231	3,269	3,237	3,197	3,330	2.7
사육 농장수(천 가구)	97	97	96	95	94	94	93	93	-1.9
농장당 사육마릿수(마리)	32.6	32.2	31.9	34.0	34.6	34.4	33.9	35.8	4.7

주 1) 매월 1일 기준이며, 사육 농장수는 한우, 육우 복합사육농장이 포함된 숫자.

2) 2020년 6월은 통계청 가축동향에 발표된 잠정치이며, 1세 미만 마릿수는 추후 통계청 확정치 발표 시 증가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축(등급판정) 마릿수

6~7월 한우 도축(등급판정) 마릿수 전년보다 증가

- 한우 도축 마릿수(6~7월) : 12만 2천 마리(전년 대비 11.5% 증가)
 - 거세우(10.1%) 및 암소(13.0%) 도축 증가
- 한우 도축 마릿수(8월) : 6만 486마리(전년 대비 31.0% 감소)
 - 육우 도축 마릿수 : 5,238마리(전년 대비 40.0% 감소)
 - 올해 추석기간(9.30~10.4)의 경우 전년 추석기간(9.12~15)보다 보름 이상
늦어 8월 도축 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 한우 등급 판정 마릿수

단위: 마리

구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체	2018	87,831	60,171	47,851	56,271	60,021	50,441	52,762	65,211	78,014	57,262	56,560	62,959	736,354
	2019	106,621	35,382	50,311	58,414	57,929	50,876	58,625	87,668	58,294	65,786	58,883	76,508	765,297
	2020	88,077	46,847	53,250	61,425	58,098	61,568	60,504	60,486					
암소	2018	37,009	26,098	21,325	25,663	28,712	23,431	25,696	28,798	35,987	23,655	24,255	26,721	328,350
	2019	45,789	14,572	22,771	27,944	27,919	24,671	28,188	39,364	25,767	27,337	24,685	32,115	341,112
	2020	38,294	20,193	25,053	29,587	28,844	30,652	29,071						
수소	2018	50,822	34,073	26,526	30,608	31,309	27,010	27,066	36,413	42,027	33,607	32,305	36,238	408,004
	2019	60,832	20,810	27,540	30,470	30,010	26,205	30,437	48,304	32,527	38,449	34,198	44,393	424,175
	2020	49,783	26,354	28,197	31,838	29,254	30,916	31,433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한우 도매가격

6~8월 수요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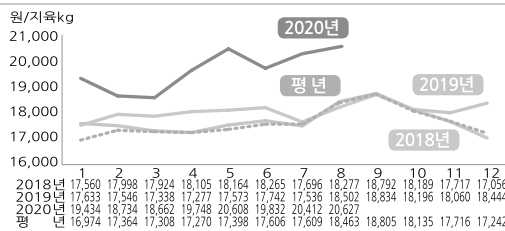
-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6~8월) : 2만 280원/kg(전년 대비 13.3% 상승)
-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소비 확대(2019년 기준 가정 내 소비 비중 약 74%, 축산물품질평가원)
 -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비대면 판매확대, 해외 여행 감소로 국내 수요 증가
 - * 통계청(3월 온라인 쇼핑) 동향 (전년 동기비) : 농수축산물(91.8%), 음식서비스(75.8)
 - * 농협(66개 매장) 매출액 증가율 : (4월) 23.2% → (5월) 42.4% → (6월) 14.7% → (7월) 16.4%
 -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조사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기 소비 증가 : "증가" 응답비중 발생 전 보다 3월 29.8%, 8월까지 전월 대비 26% 이상 유지
 - 대형마트 등 매장 이용 및 온라인 구매회수 증가, 음식점 소비 감소
- 육우 도매가격(평균/6~8월) : 1만 487원/kg(전년 대비 10.6% 상승)

한우 산지가격

8월 한우 송아지 평균가격 전년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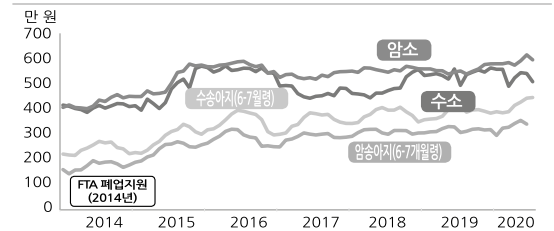
-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6~7개월령) : 344만 원(전년 대비 2.8% 상승)
- 한우 수송아지 산지가격(6~7개월령) : 442만 원(전년 대비 4.3% 상승)
 - 도매가격 상승으로 송아지 입식 및 번식의향 상승 지속

■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가격정보」

■ 한우 산지가격 동향



자료: 농협중앙회

수급 전망

사육 마릿수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0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20만 3천 마리(전년 대비 4.0% 증가)
 - 가임암소 154만 2천(3.9% 증가), 1세 미만 94만 2천(3.9% 증가)
- 2021년 12월 : 327만 2천 마리(전년 대비 2.2% 증가)
 - 가임암소 157만 8천(2.3% 증가), 1세 미만 95만 1천(1.0% 증가)

■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구분		2020년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체	마릿수	3,038	3,175	3,282	3,203	3,141	3,309	3,323	3,272
	증감률	4.5	2.6	5.3	4.0	3.4	4.2	1.3	2.2
1세 미만	마릿수	922	887	948	942	933	941	949	951
	증감률	6.0	-0.4	5.6	3.9	1.2	6.2	0.1	1.0
가임암소	마릿수	1,455	1,480	1,549	1,542	1,505	1,531	1,576	1,578
	증감률	4.2	4.2	5.1	3.9	3.5	3.4	1.7	2.3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한우 도축 마릿수

2020~21년 한우 도축 마릿수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

- 2020년 도축 마릿수: 78만 3천 마리(전년 76만 5천, 평년 74만 8천)
 - 2020년 9~11월: 21만 6천 마리(전년 대비 18.3% 증가)
 - 추석 시기 차이로 6~8월 도축 마릿수 감소, 9~11월 증가폭 확대
- 2021년 도축 마릿수: 84만 5천 마리
 - 2020년 12월~2021년 2월: 22만 3천 마리(전년 대비 5.3% 증가)

한우고기 도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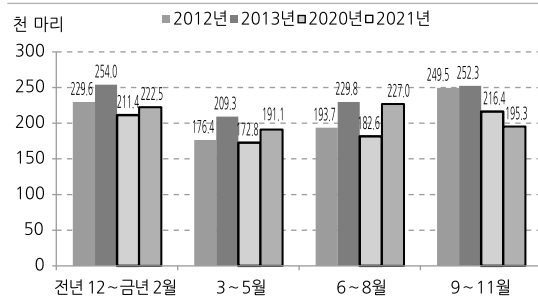
2021년 한우고기 전체 평균 도매가격 금년보다 하락

- 2020년 9~11월 도매가격(전체 평균): 1만 9,000~1만 9,500원(전년 대비 3~7% 상승)
 -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 거세우 도축 감소 등
- 2021년 2월 이후 도매가격 도축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세 전환
 - 2021년 전체 평균 도매가격: 1만 7,500~1만 8,500원으로 전년보다 하락
 - 2020년 12월~2021년 2월: 1만 8,000~1만 8,500원(전년 대비 2~6% 하락)

■ 한우 도축 및 도매가격(전체 평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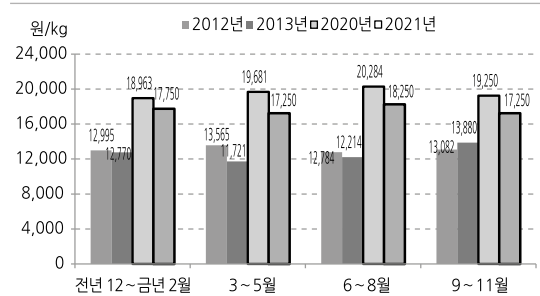
구 분		한우 도축 마릿수(천 마리)				한우 도매가격(원/kg)			
		전년 12~금년 2월	3~5월	6~8월	9~11월	전년 12~금년 2월	3~5월	6~8월	9~11월
2021년(A)		222.5	191.1	227.0	195.3	18,000~18,500	17,000~17,500	18,000~18,500	17,000~17,500
2020년(B)		211.4	172.8	182.6	216.4	18,963	19,681	20,280	19,000~19,500
2019년(C)		205.0	166.7	197.2	183.0	17,599	17,549	17,908	18,353
(A/B, %)		5.2	10.6	24.3	-9.8	-5.1~-2.1	-13.1~-11.1	-11.2~-8.8	-12.8~-7.9
(B/C, %)		3.2	3.7	-7.4	18.3	7.8	12.1	13.3	3.5~6.2
과거 불황기	2014년	260.7	214.8	249.7	202.3	14,121	13,784	14,469	14,769
	2013년	254.0	209.3	229.8	252.3	12,770	11,721	12,214	13,880
	2012년	229.6	176.4	193.7	249.5	12,995	13,565	12,784	13,082

■ 한우 도축 마릿수 및 전망



주: 한우 도축 마릿수는 등급판정 마릿수 기준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한우 도매가격 전망



추석 성수기 수급 분석

추석 성수기 수급

추석 성수기 한우 도축 전년보다 증가, 수요 증가

- 2020년 추석 성수기(추석 전 4주간, 8.31.~9.29.) 도축 마릿수 전년(10만)보다 2~4% 증가한 10만 2천~4천 마리
 - 거세우 출하예정 물량은 적으나, 암소 출하 증가
- 추석 성수기 수요 증가
 - 해외 여행 감소로 국내 수요 증가, 과일 가격 상승으로 선물세트 대체효과 등

도매가격

추석 성수기 한우고기 도매가격 전년보다 상승

- 2020년 추석 성수기 한우고기 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보다 10% 내외 상승한 2만 원/kg 내외 형성

2020년 추석 성수기 한우 도축 및 도매가격 전망

단위: 천 마리, 원/kg

구분	2020년	2019년	평년	전년 대비(%)
도축 마릿수	102~104	100	98	2.0~4.0
도매가격	20,000 내외	18,280	18,288	10.0 내외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0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중기 전망

사육 마릿수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2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31만 4천 마리(전년 대비 1.3% 증가)
 - 가임암소 159만 2천(0.8% 증가), 1세 미만 97만 3천 (2.4% 증가)
- 2023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35만 5천 마리(전년 대비 1.2% 증가)
 - 가임암소 160만 2천(0.6% 증가), 1세 미만 99만 7천(0.6% 증가)

도축 마릿수

가임암소 증가로 송아지 생산 늘어 2023년까지 도축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2년 한우 도축 마릿수 : 89만 1천 마리(전년 대비 5.5% 증가)
- 2023년 한우 도축 마릿수 : 92만 1천 마리(전년 대비 3.4% 증가)
 - 한우 사육 증가로 도축 마릿수 지속 증가 전망

※ 2020년 9~11월 송아지(6~7개월령) 입식 시 출하가 예상되는 2022년 9~11월 한우 도축 마릿수 증가 전망
→ 공급 증가로 도매가격 하락 예상, 신중한 입식결정 필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구분		2022년				2023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체	마릿수	3,195	3,363	3,371	3,314	3,233	3,402	3,412	3,355
	증감률	1.7	1.6	1.4	1.3	1.2	1.1	1.2	1.2
1세 미만	마릿수	952	970	976	973	975	992	998	997
	증감률	2.0	3.1	2.8	2.4	2.4	2.2	2.3	2.4
가임암소	마릿수	1,535	1,549	1,592	1,592	1,546	1,560	1,604	1,602
	증감률	1.9	1.2	1.0	0.8	0.7	0.7	0.7	0.6
도축	마릿수	242.7	203.3	238.7	203.4	254.7	210.4	243.1	210.1
	증감률	9.1	6.4	5.2	4.2	5.0	3.5	1.9	3.3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2024년까지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4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 336만 9천 마리(전년 대비 0.4% 증가)
 - 가임암소 161만(0.5% 증가), 1세 미만 99만 8천(0.1% 증가)
- 한우 사육 마릿수 늘어 도축 지속 증가 전망
 - 도축 증가로 한우고기 도매가격 조정 불가피
 - 한우 사육 마릿수 조절을 위한 암소 감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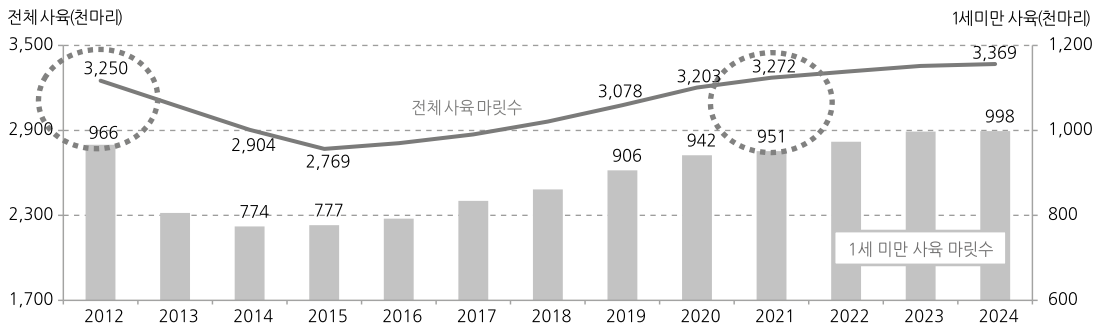
■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마릿수	2,871	2,961	3,078	3,203	3,272	3,314	3,355	3,369
	증감률	2.2	3.1	3.9	4.0	2.2	1.3	1.2	0.4
1세 미만	마릿수	834	861	906	942	951	973	997	998
	증감률	5.3	3.2	5.2	3.9	1.0	2.4	2.4	0.1
가임암소	마릿수	1,372	1,427	1,489	1,542	1,578	1,592	1,602	1,610
	증감률	1.9	4.0	4.3	3.6	2.3	0.8	0.6	0.5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한우 사육과 1세 미만 마릿수 전망



축산관측(한육우) 다음호 예고(예정일자: 2020. 11. 25.)

■ 축 종: 한육우

■ 내 용: 사육 동향과 전망, 가격 동향과 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소비동향, 수출입동향

『축산관측』은 농업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산관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KRE 회원]에 가입하시면 『축산관측』을 전자우편(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http://www.mafra.go.kr>

☎ 061) 820-2286 FAX: 061) 820-2411
 ☎ 044) 201-2217 FAX: 044) 868-3965

담당자: 이형우(축산관측팀장), 김형진(한육우), 심민희(돼지), 김명수(산란계), 정세미(육계), 강두현(오리), 강지석(젖소), 김수연(국제축산)
 감 수: 국승용(농업관측본부장)

『축산관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합니다!



➤ 접종대상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염소

▶ 사슴은 연 1회(암컷 7월, 수컷 8월) 출산·제각 시기에 맞춰 접종

➤ 접종시기

소·염소는 1년에 2차례 접종(1차 4월, 2차 10월)*

▶ 지자체의 방역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접종백신

O+A형 백신

소규모농가(소 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는 시·군에서 일괄 배부하며,
전업농가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

▶ 소규모농가(보조 100%), 전업농가(보조 50%)

➤ 접종방법

소규모농가 공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 지원
전업 농가 자체 접종

접종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을 방지합시다!



접종전



백신 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마스크, 방역덧신 및
장갑을 착용하고 1농장/1회
사용원칙 준수 철저

접종시



백신 접종요령 준수,
주사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접종후



접종인력·차량 및 접종에
사용한 물품에 대한 세척·소독
철저

➤ 모니터링

- ① 일제접종 4주 후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 ②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추가접종 명령 및 1개월 내 재검사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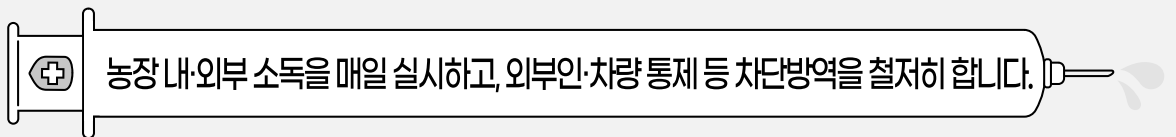
농장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장은 보상금 전액을 감액합니다.
- * 신고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의무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을 감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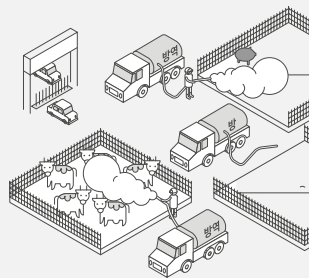
가축을 사거나 팔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 (돼지,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 종돈) 이력관리시스템
-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어미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들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



농장 내·외부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 ☑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 *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
- *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https://www.qi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지도를 철저히 합니다.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구제역·AI 의심 가축
신고전화(국번없이)

1588-9060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4060

지방자치단체

1588-4060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